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중반~1991년의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Exoticism in Western Costume)

숙명여대 의류학과

송명진·양숙희

目 次

I. 서 론	V. 현대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양상과 그 표현
II. 이론적 배경	1. 원시적 특성
1. 문화의 변용	2. 민족적 요소
2. 복식의 문화인류학적 측면	1) 동양적 요소
3. 1980년대의 시대상황	2) 동구권의 소수 민족적 요소
	VI. 결 론

I. 서 론

의생활(衣生活)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문화적, 학문적으로 폭넓은 세계를 형성해 왔다.

복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기능적 관점이 중시된 블루머(Amelie Bloomer) 여사에 의한 연구는 여성복 개혁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밖에 사회·경제적 발달로 인한 '유행의 민주화'가 복식연구를 촉진 시켰으며, 심리학자 프루겔(F.C Flugel) 및 프로이드(Freud) 등이 이론 심리학의 발달은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복식연구 활동을 활성화 시켰다.¹⁾ 그 이후로, 인간행동에

있어서의 복식과 유행의 중요성, 소비생활 연구, 그리고 의생활을 통한 계층간의 상호작용등 연구 분야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식학자들의 관심이 복식을 문화속에서 조성된 내적 욕구와 미의식(美意識)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식학자들의 연구 관점이 문화 인류학적 측면으로 넓혀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재 까지는 문화 전반에서 복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와 관련지어 연구한 한문적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서양 패션에 새로운 주제로 등장한 민족풍(Ethnicism)과 원시적 특성(Primitivism)을 이국취향(Exoticism)으로

1) 양숙희, "Decoration의 기능과 Europe의 여성 의상 개혁운동" 「숙명여대 생활과학 연구소 논문집」(1983 .12), P.37, pp.56~57.

규정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국취향'이란 자기 나라나 민족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거나, 그것을 통해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²⁾ 이러한 이국취향이 하나의 유행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문화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다른 문화의 형태와 특성을 통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크뢰버(A.L Kroeber)의 주장에서와 같이 문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을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각 문화권 안에서의 복식미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복식의 이국취향 양상과 시대적 의미를 연관지어 밝히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이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첫째, 두개의 문화 또는 그 이상의 문화들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어 동질화되거나 융합되는 과정인 '문화변용'의 개념을 복식과 관련지어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을 원시적 특성과 민족적 요소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역사적, 예술적 배경을 살핀다.

세째, 세계 복식유행을 이끌어 가는 서양 복식계에서 이와 같은 이국취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캡(Gap)」 「패션 프리뷰(Fashion Preview)」, 「보그(Vogue)」 등 패션잡지에 발표된 대표적인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과 복식사적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관찰한다.

또한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은 복식의 형태미와 재질을 비롯하여 디테일과 트리밍등의 장식적 요소 및 장신구 등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변용(Acculturation)

'문화'라는 말은 학술 용어로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인다. 매우 다양한 정의와 개념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로 테일러(E.B Tylor)와 화이트(Lesile A. White)의 정의가 있다. 이 두 학자는 "문화란 인간 고유의 소유물이고 인간에 의해 얻어진 복합종체(複合總體)이며, 그 기초는 인간의 상징의 능력이다."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문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또한 생활과정에서 인간은 많은 효과적인 지식들을 터득하고 여러세대를 거치면서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는데 이와같은 인간 지식으로서의 도구, 기술, 사회조직, 언어, 관습, 신앙등의 총합체를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한 갈래를 다루는 학문인 문화인류학은 인간 집단인 부족이나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양식, 즉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각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여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과 민족문화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문화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이와 같은 문화 변화는 발명이나 발전과 같은 내적요인과 전파나 외부로 부터의 자극등과 같은 외적요인의 조건이 있다.⁵⁾ 따라서 한 문화권이 문화전파(文化傳播)라는 방법에 의하여 다른 문화 요소를 수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회 내부에서 어떤 문화 요소를 발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9세기 말엽에 영·미 학자들은 서구문화를 접한 원시 사회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은 문화전파에서 특별히 분리시킨 '문화변용(文化變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 어느 한 집단

2)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서울: 삼성 출판사, 1987)

3) 이희현, "Culture change와 Acculturation 이론을 중심으로 본 현대복의 성립", 「관동대 논문집 (자연, 예체 능)」 17집 (강릉: 관동대, 1989), P.85.

4)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공저,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6), pp.66~67.

5) 이광규, 「문화 인류학의 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199.

혹은 두 집단에 있어서 본래 문화 유형들에 일어나는 변화현상을 의미한다.⁶⁾

이 문화의 변용은 때에 따라서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으며 전파되어온 모든 요소들 중에서 수용하는 측의 생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인간 내면에는 새롭게 등장한 타문화의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표현으로써 적극적인 선택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이같은 양상이 복식에도 나타나며, 이것을 이국취향(異國趣向)이라 할 수 있다.

2. 복식의 문화인류학적 측면

복식은 인간의 생태(生態)적 측면은 물론, 심리 및 문화등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즉, 복식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어 형상화 시키면서 한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 문화적 양식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예술적 양식을 반영 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행위인 예술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어떠한 시대와 사회에서든지 존재한다. 예술은, 미적으로 표현하는 기술과 그 산물인 예술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몸의 치장, 복식, 건축, 실내장식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의 예술적 상징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술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민족성 또는 민족집단과 관계되며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술의 도구이다.⁷⁾ 신체를 채색하고 장식 하므로서 인간의 몸은 문화적 산물로 변화되며, 예술이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듯이 복식 또한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것은 민족사회의 전통의상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의복관습(衣服慣習)으로 전해진다.

관습적인 행위로서 복식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지역적, 시대적으로 나타나며 장식과 의복의 개념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고, 그것은 문화간

의 비교 즉, 집단이나 개인의 문화적, 지리적 기원(起源)과 복식문화의 전파를 밝히는데 근거가 된다

⁸⁾ 복식문화의 전파는 상위문화(上位文化)와 하위문화 사이에서 그리고 서양 문화와 비서양문화 사이에서 발생한다.⁹⁾ 특히 동·서양간의 문화 전파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일정한 문화에서 복식 디자인 형태와 재료 사이의 강한 관련성과 차이점은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원시 사회와 진보된 사회, 동양과 서양에서도 규명될 수 있다.

3. 1980년대의 시대상황

1980년대의 세계는 어느 시기 보다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한 반면, 그에 따르는 회의와 반성으로 인해 인류의 의식 구조를 새롭게 혁신시켜 주는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다.

21세기를 앞둔 인류의 문화는 서구 중심의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의 토대위에 반산업주의적 특성을 덧붙여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꾀하고 있다. 한때 각 나라간의 정치, 경제적 대립과 산업화의 폐허로 부터 조성되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세계정세는 인류 공동으로 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공동운명체의 지구촌'이라는 자각이 일어났다.

이러한 세계의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의 패션은 세계 각국의 복합된 문화의 표출과 새로운 디자이너들의 대거 등장으로 더욱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의 패션을 특징짓는 내·외적 요인은 첫째, 동·서냉전의 분위기속에서 폐쇄되었던 중국,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1977년 등소평의 등장과 더불어 개혁정책의 실행으로 변모시켰다. 문호개방과 실용주의노선이 추진 되었으며, 더불어 중국여성에게도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사치와 멋이 1978년 피에르 카르뎅(Pierre Cardin)을 선두로 찾아왔다. 1984년 이후 중국 여리도시에서 패션쇼

6) 이광규, 앞의 책, pp.204~205

7)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공저, 앞의 책, P.353

8) 이희현, 앞의 글, P.36

9)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P.1

가 개최되었으며, 1986년 독일의 이게도(Igedo) 모드박람회에서 선보인 중국의 실크쇼는 전통적 문화유산에 충실하면서도 유럽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¹⁰⁾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글라스노스트(개방의 뜻)’와 ‘페레스트로이카(재건, 개편의 뜻)’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직된 정치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소련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패션판계에서는 1987년 독일의 패션지 「부르다 모던」이 소련판으로 출간되었고,¹¹⁾ 1987년 12월에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모드쇼’가 열렸다. 이 행사는 소련외에 중국, 동독,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쿠바 등의 공산진영 국가들이 참가한 최대규모의 행사로서 본격적인 상업주의의 패션쇼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동구의 많은 국가들과 소련내의 소수민족들의 전통 민속복과 문화는 세계 패션계에 새로운 주제로 대두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패션 운동인 뉴 웨이브 패션(New wave Fashion)의 한흐름인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을 들 수 있다.

건축 디자인에서 발생된 현대 디자인의 큰 조류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국제화, 획일화와 단순한 기계화, 그리고 역사나 전통을 무시했던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에 반발, 그에 대한 해결점으로 나타났다. 첫째, 역사주의 및 복고주의, 장식주의를 통합하는 역사성과 둘째, 토속성 세째, 전위성 및 상징성의 특성을 가진다.¹²⁾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속에서 심오한 정신 세계를 형성하여 서양문화에 대해 신비와 동경의 대상이며, 미래를 개척해 갈 동반자로써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동양지역과 생태학적 위협의 인식에 따른 원시세계 및 고유의

민족적 특성들에 대한 분야들이 서양 패션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자웅동체(雌雄同體)를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는 여성복의 매니쉬 현상과 짧은 헤어 스타일, 아울러 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장 메이크 업(Make-up)과 무대 복장등을 새롭게 형성한다.¹³⁾

III. 현대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양상과 그 표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이란, 서양 중심의 현대복식에 비서양지역의 ‘민속의상’ 또는 ‘민족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어느곳이나 공용되고 있는 현대의 서양의상과 특정의 나라, 민족 또는 지역에 한하여 착용되는 의복이 구분되어 존재한다. 후자에 속하는 의복들은 그 지역 고유의 풍속, 풍습, 모양, 소재, 기술등이 반영되는데, 이를 ‘민속의상(民俗衣裳)’이라고 한다.¹⁴⁾

이러한 비서양 지역의 민속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서양복식에 영향을 준 현상은 서양복식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다. 특히 동·서양간의 복식문화 교류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개발된 실크로드를 통하여 또는 11~13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¹⁵⁾

1980년대에서 1991년까지 나타난 이국취향의 양상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원시적 성격을 띠는 아프리카나 문명에서 떨어진 오지(奥地)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일대의 많은 민족적 특성이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

10) 「중공, 유럽에 실크 모드 선보이다.」, 월간 ‘멋’, 동아일보, 1986, 12월호

11) 「패션계의 화제: 소련에서도 드디어 패션지 출현」, 월간 ‘멋’, 동아일보, 1987, 5월호.

1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P.21

13) 이정후,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앤티패션 (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석사논문, 1990, P.90

14) 황춘섭, 「민족의상」, (서울:수학사, 1991), P.10

15) 김윤희, 앞의글, P.13

고 유럽 각국 및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지역의 민속 의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특색을 이루었다. 이는 피상적인 이미지의 표출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문양, 색채, 세부적 장식 요소 등에 이르는 복식의 표현과 복식 이외의 지역적 특성과 고유한 문물등이 적극적으로 창작 대상이 되어 탐구된 점이 두드러 진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서 1991년에 이르기 까지 패션의 창작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 로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현대 복식사에 특징적 시기로 남을 것이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은 외면당한 인간의 감상적인 측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메세지(Message)를 전달할 것으로 파단된다.

1. 원시적 특성(Primitivism)

복식에 있어서의 원시적 특성이란, 의복 기원에 서 나체에 처음으로 표현되었던 장식이나 육체의 변형 또는, 의복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이 사회적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현대에 까지 남아있는 성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복식에 있어서의 원시적 특성은 이와 같은 의복과 장식의 성향 및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여 그들이 지닌 풍습과 문화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욕구의 표출은 19세기 말 '원시회귀'활동의 동기와 많은 상관성을 지닌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적인 것의 비대와 문화적 활동에 만족한 예술가나 시인들은 원시의 문화와 민족에 접촉 관계를 찾으려 하였다. 그들은 회화 자체를 무의식과 관련지어 문명에 대한 실증으로 인해 인간 내부의 잠재의식의 구현에 관심을 지녔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명쾌한 표현력이자, 순수한 감정의 표출로서 원초적인 것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탐구는 니그로의 조각에 몰두되어지며 본래 소박함과 진솔함, 그리고 때묻지 않은 창의력을 지닌 것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원시

적(Primitive)'이란 용어가 1906년 이후, 아프리카 토인들의 작품에 대해 쓰일 정도로 의미가 변화하게 될 만큼 서구인들의 취향과 심미안이 변화되었다. 이런 작품들은 바로 상실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기법 등을 지니고 있다.¹⁶⁾ 피카소(Pablo Picasso), 마티스(H. Matisse), 브라크(G. Braque), 브랑쿠지(Brancusi) 등은 아프리카 흑인 예술품들 중 최상품에 담겨진 초월함과 개념적인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¹⁷⁾

어느 특정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승인, 수용 될 수는 없지만, 사상에 있어서 생기를 불어 넣은 이미지는 영원히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받아 들어진다. '생명' '상징' '아미지'라는 말로 특정 지위지는 원시 예술은 현대인에게 본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관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고갱 이후 야수파, 표현주의자, 입체파 등이 전논리적(前論理的)인 원시적 성격을 지니는 동일 계열에 속한다. 그리고 관념적 프리미티비즘은 대지예술, 환경예술, 해프닝 등을 포함하며, 프리미티비즘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대미술의 한 양상을 일컬을 수 있게 되었다.¹⁸⁾

이와 같은 현대미술이 가지는 원시의 표현성은 끊임없이 현대복식의 예술성에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¹⁹⁾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독립되고 통일된 양식으로 표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기교에 얹매었던 패션의 창작성이 유감없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를 일컬어 패션 전문지들은 'New Age Primitive'라 칭하기도 한다.

또한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패션테마로 등장한 '에코로지(Ecology)'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는 곧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시세계의 동경을 표현한 것이며, 원시적 특성과 큰 연관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예술적 동기와 사회, 문화적 여건 속에서 형성된 복식에서의 원시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의상과 풍물, 마야, 아즈텍 문명, 고갱의

16) E. H. 끔브리치, 최 민 번역, 「서양미술사」(서울: 열화당, 1986), P.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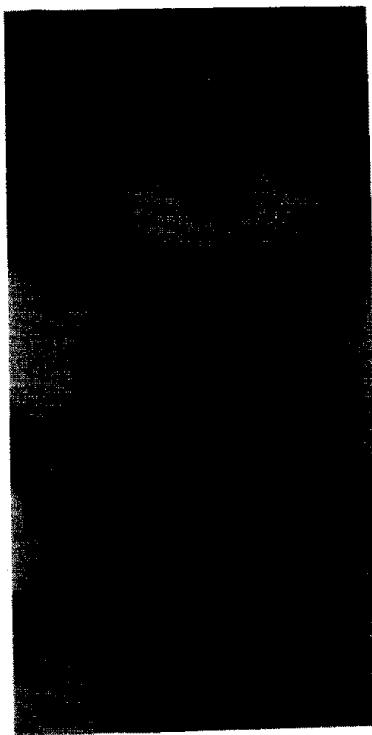
17) Edward Lucie Smith, 「ART NOW」(서울, 한국미술연감사, 1985) P.16

18) 손숙영, "피카소 작품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회화과 석사논문*, 1978, P.36

19) 이은영, "현대 복식의 예술적 의미에 대하여" *숙명여대 「원우론총 3」* 1985,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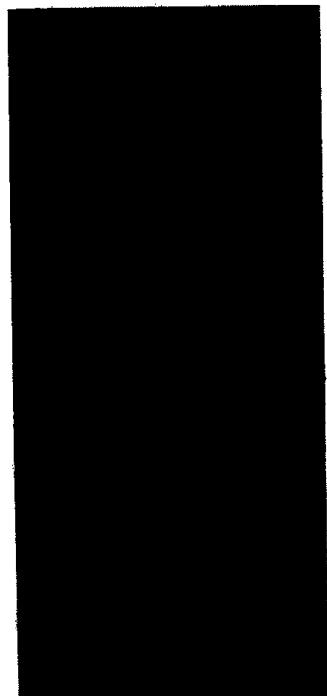
리카 의상과 풍물, 마야, 아즈텍문명, 고갱의 그림에서 표현된 타히티 항구의 이미지 등이 주된 컨셉(Concept)을 형성했다.

이 의상들은 대부분 단조로운 형태에 특징적인 프린트나 악세사리 및 재질 사용으로 원시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 대표적인 형태는 (1) 짧은 상의와 로인 클로드(Loin Cloth)와 같은 요의(腰衣)형식의 스커트 [그림1], (2) 단순한 원피스 형태로서 목둘레나, 허리등을 매거나 조여서 자연스런 드레퍼리를 표현한 의상 [그림2, 3] 등으로 의상이 매우 단조로운 구성법으로 신체 노출을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1] Gianmarco Venturi(Fahion Show, 91 s/s)
로인 클로드 형태의 스커트가 재질과 착장법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의상.

또한 재질면에서 작게 깎은 동물의 뼈, 조개 껌질 등을 엮거나, 짚, 야자나무 껌질, 가죽끈 등을 엮어서 가공하지 않은 묘미를 보여준다. [그림4]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율동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며, 조직이 거칠거나 성근 마와 면직물도 세련되지 못한 원시세계의 문화를 표현해 준다. [그림1.3] 토속성이 강하게 표출된 문양인 아프리카나 남미의 고대 유적에 남아있는 동굴 벽화와 같은 도안이 모티프



[그림2] Hiroko Koshino(Fahion Show 91 s/s)
단순한 착장과 토속성이 강한 문양



[그림3] Massimo Montecorte(Fahion Show 91 s/s)
열대지방의 특성이 나타나는 재질,

가 되기도 하고, [그림5] [그림6]에서 보듯이 어린이 그림과 같이 둔하고 굵은 선으로 상징화한 문양도 있다. 이들은 모두 원시적 성격을 가지는 야수과

가 추구한 '단순한 수법'과²⁰⁾ 동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7]은 남아프리카 트란스발주에 사는 엔데벨레(Ndebele) 부족의 전통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을 응용하듯 그 유사성이 짙다. 또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수공예인 바틱이나, 아프리카 가면을 회화적(戲畫的)으로 표현되어 특색을 이루기도 한다.

전통적인 아프리카 색채는 갈색, 황갈색, 붉은갈색, 검은색 등의 흙이나 땅의 색채이다. 노랑, 금색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강렬한 색이 어울려 독특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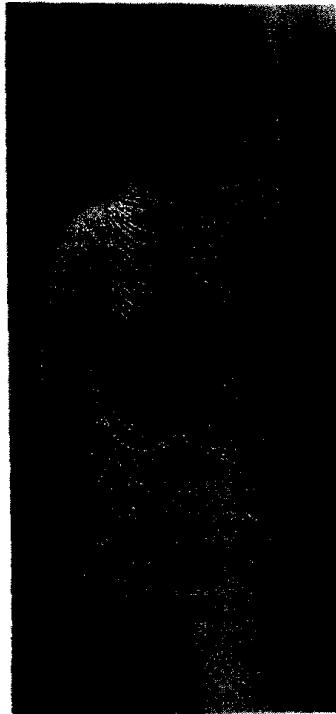
원시적 특성의 복식 요소 중에서 장식의 비중은 매우 크다.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 의복의 기원 중에서 신체장식설을 주장하는 Starr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²¹⁾고 말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장식은 의복이나 보석 또는 다양한 장신구 일수도 있으며, 몸에 직접 채색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특성이 두드러진 목걸이, 귀걸이 등과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까지 특별한 경우 표현되어지곤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적 특성은 육체의 자연미나 강렬한 색채, 실루엣의 단순성 그리고 육체의 노출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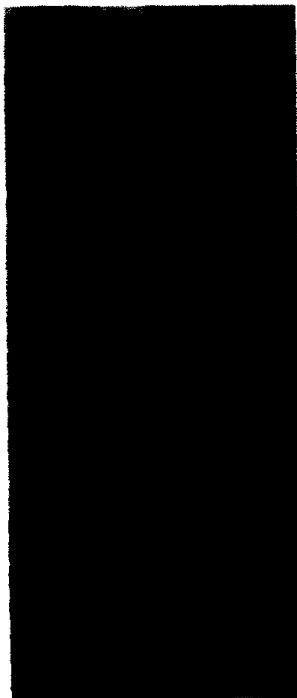
2. 민족적 요소

과학·기술 문명 및 정치 경제에 관련된 가치관과 세계 정세에서 작게는 개인을 둘러싼 생활에 이르기 까지 현대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동시대를 살면서, 수세기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여러 가지 독특한 고유의 복식문화가 존재한다. '민속의상' 또는 '민족의상'이라 부르는 이 의장(衣裝)들에는 지방이나 민족 특유의 풍속, 풍습, 모양, 소재, 패턴 등이 나타나 있다.²²⁾

1920년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기술적 양식에서는 합목적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역사적인 양식의



[그림4] Errante(Fahion Show 91 s/s)
조개껍질을 이용한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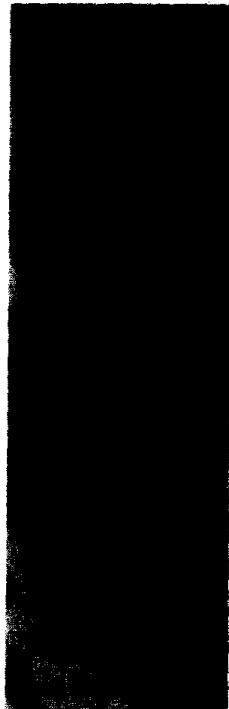


[그림5] Guy Paulin(gap, 89 s/s)
아프리카나 안데스의 벽화와 유사한 프린트

20) 김재관, 「현대 미술 속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흥익대 회화과 석사논문, 1978, P.11

21) 이인자, 「복식사회 심리학」, (서울:수학사, 1989), P.49

22) 한국 직물 겸사소,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에 대한 고찰" 5권 1호-6권1호, 1974.4~1978.6, P.102



[그림6] Jean-Charles De Castelbajac(Fahion Preview, 90 s/s)

원시시대 벽화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그림7] 앤 데 벨로의 원주민과 집을 꾸미는 그들의 풍습

개성이 무시되었다.²³⁾ 한때는 풍토를 가지지 않는 정신 즉, 신문명을 받아들여 서구화 또는 국제화되는 것이 근대인의 상징이며, 자랑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올림픽 게임이나 국제적 문화행사 등에서 각 참가자들은 각기 민족의상을 입고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자랑한다.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을 대하면 그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놀라게 된다.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아 내고 그 결과를 현대의 생활에 활용하고자, 많은 디자이너들은 박물관을 통해 복식사를 고찰하며 유적이 많은 나라를 방문하여 민속 의상을 접하고, 많은 이국적 영감을 얻는다.²⁴⁾

그러므로 1980년대에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민족의상들이 순수한 창작 활동으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향토성²⁵⁾에의 귀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정신의 향수(鄉愁)이며, 이러한 미국 취향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문화의 애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8] Jin Abe(gap, 91 s/s Fahion Show 91 s/s)

2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82) P.62

24) 황춘섭, 앞의 책, pp.13~14

25) 'Local Customs' 또는 'Local Color'로 박명희는 앞의 글에서 토속성으로 표현했다.

26) 이광규, "서양에서 본 동양문화", 연세대 「동서연구」, 1988. P.53

1) 동양적 요소(Orientalism)

“근대가 아닌 현대에 필요한 요소는 서양의 전통과 동양의 전통을 합하는 것이다.”라고 이광규는 주장하고 있다.²⁶⁾ 예술 사조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동방취미(東方趣味)의 뜻으로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대표하는 것이다.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은 것이다. 18세기경부터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 유행하여 ‘시느와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 튀르크리(Turquerie- 터키취미) 등이라고 하여 미술, 음악등에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급성장한 일본의 패션계와 디자이너들, 문화를 개방한 중국 그리고 올림픽 개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 등 모든 상황들이 서양인들의 관심을 동양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 켄조(Ken Zo)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유럽 패션계에 자리를 굳히고, 서구인의 패션 감각에 동양적 분위기를 독특한 개성과 매력으로 표현해 주었다. 이들이 내놓은 기모노풍에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샤넬(Channel), 디오르(Dior), 에르테(Erté), 지방시(Givancy) 등이 일본풍을 디자인하여 본격적인 동양 풍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봄·여름 콜렉션에서 지안 프란코 페레(Gian Franco Peré), 지아니 베르사체(Giani Versache)가 소재에서 핸드 메이드 기법까지 표현하여 완연한 일본풍의 모드를 연출하였다. 또한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나오는 아랍풍 [그림8]과 기모노 스타일등이, 북고의 경향을 떠고 20세기초 패션 혁명가인 폴 뿐아래(Paul Poiret)를 재조명하기도 했다.

1980년대의 동양풍은 서구인의 일상 생활에 깊숙히 관여하리 만큼 시대 풍속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의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제의 아름다움이 창조되었다.

동·서양의 복식은 본질적으로 형태미에서 특징을 보인다. 신체의 선을 나타내는 반면, ‘김윤희’²⁷⁾의 논문에서 연구된 동양복식의 형태는 첫째, 복식을 통해 인체의 윤곽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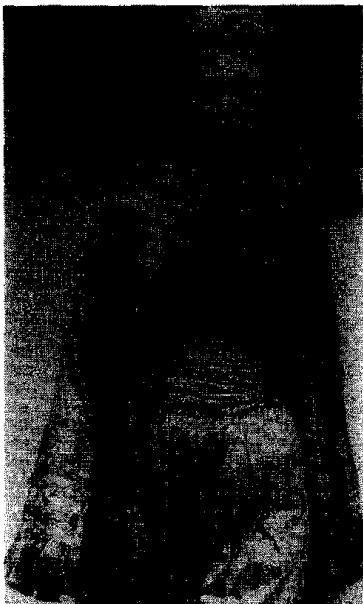
가 없었으며,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드레이프형의 복식형태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서양패션에 표현된 동양적 특성도 허리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며, 바지와 레이어링의 차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性)의 혼란을 상징하고 있다. 1980년대의 동양풍은 여유있게 입을 수 있는 ‘Easy look’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런 경향은 [그림9]와 같이 Trapeze실루엣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단순한 형태로 중국의 맨더린(Mandolin style)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은 좁은 밴드 칼라에 앞단추가 나란히 달린 단순한 스타일이다. [그림10] 재질면에서도 특성이 표현된다.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가 있을 때마다 동·서양 복식에 큰 영향을 준것은 인도나 중국 및 페르시아의 수준 높은 직물이었음은 복식 사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주로 흐르는 듯한 소재인 얇은 실크나 비치는 옷감과 새틴, 금속사의 이용 등 광택있는 소재가 많다. 다마스크의 화려함도 동양의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한다. 여름 콜렉션을 위해 새롭게 표현된 재질은 향토색 짙은 마직물의 의상이 있다. [그림11]은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동양의 두루마기를 응용한 듯한 풍성한 실루엣과 독창적인 핸드 메이드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색상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색과 스카이 블루 등으로 동양의 미를 그대로 표현하였다. 장식적인 면은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와 의상의 가장자리의 술장식과 금박무늬[그림12], 그리고 인도 복식에서와 같이 반짝이는 구슬, 거울조각 등이 문양으로 수놓인 것 등의 다양한 기법이 돋보였다. 문양은 곤룡포(龐龍袍)에서 따온 듯한 용문과 꽃, 나무, 기학학적 무늬가 가득 나열된 페르시아 문양 등이 나타난다.[그림13]

터키나 베트남 민속복에 나타나는 모자의 각종의 색깔있는 보석이 박힌 목걸이, 팔찌 그리고 아랍의 유목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허리 장식품이 의상과 더불어 동방에 대한 이국풍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그림14]

매우 사치스럽고 장식적 경향이 두드러진 동양적 요소의 특색은 원색위주의 동양색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선명한 빨강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다른 색조의 풍부함, 명도, 채도가 다양한 파랑금색, 구리

빛이 강조색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검정색은 지나치게 강렬한 색조의 흐름에 안정감을 주어 민족특유의 분위기를 연출 한다.

이상에 살펴본 80년대 서양 복식에 나타난 동양적 요소는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드레이프 스타일이나 트레페즈 라인, 박스 스타일등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다양한 컬러와 소재, 트리밍 그리고 금, 보석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악세사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양복식의 가지는 풍부한 문화적 특색은 서구 복식에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9] challghan(gap, 93 s/s)

아라비안 모드

2) 동구권의 소수 민족적 요소

민족의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은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며, 역사·지리상에 있어 민족간의 교류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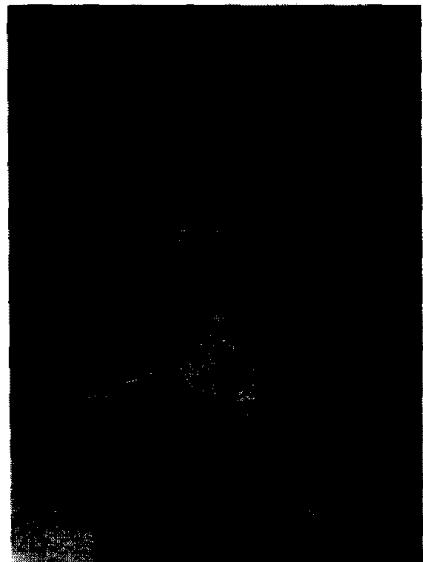
80년대 세계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소련을 위시한 형가리,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등 동부유럽을 차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물결이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한 패션계는 그들 나라가 가지는 최근의 군인 복에서부터 민족의상 까지 다양한 복식 특징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10] Betty Jacson 맨더린 스타일(gap, 89 s/s)

[그림11] Valentino(Vogue, 독일,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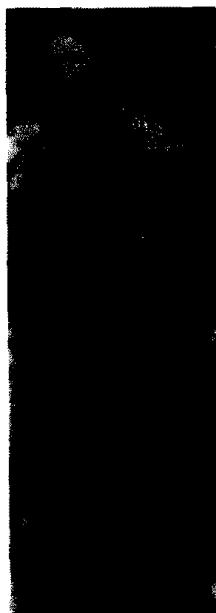
트레페즈라인(Trapeze line)을 보여주는 중국풍의 의상



[그림12] Issey-Miyake(gap collection 91 s/s)

마(麻)직물을 이용하여 동양복식의 토속성이 들통보이는 특징적 구성법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발칸반도를 끼고 있는 동부 유럽은 역사적으로 민족간의 교류가 빈번한 곳이어서, 민족의상에 유럽의 도시화를 향해 끌리는 힘과 동양의 이국적 영향을 향해 끌리는 힘을



[그림13] Gianniario Venturi(gao, 90 s/s)

금박이 놓인 중국 모든 의상



[그림14] Mario Valentino(Fahion Preview, 91 s/s)

중국의 흉배(胸背)에서 따온 용 문양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⁸⁾

이러한 특징은 각기 다른 문화가 접하여 서로의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 변용의 대표적인



[그림15] Challghan(Fahion Show 91 s/s)

'80년대 서양복식에서 조끼가 유행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아랍 유목민의 모드

예로 생각된다.

80년대 후반에 들어 가을·겨울 콜렉션의 주제가 된 것은 러시아의 이미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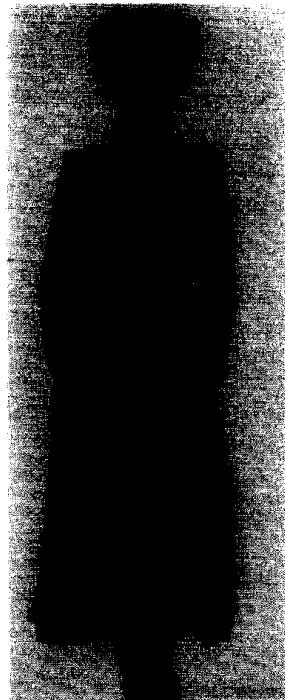
그 형태는 단순하여 풍성함을 강조하였고, 길게 흐르는 코트가 모피의 장식과 함께 주로 많이 보여졌다. 특징은 코사크족의 모피모자, 부츠, 그리고 옛날 러시아 귀족들을 떠올리는 화려한 장신구와 다양한 재질에 있다.

재질은 모피, 아스트라칸, 벨벳, 변화있는 조직의 니트 그리고 타페스트리의 천, 양가죽 등이 쓰이고 있다. 그위에 자카드 무늬를 놓거나 안에 솜이나 털을 넣은 퀼팅(quilting)의 기법을 쓰기도 하였다.

금갈색, 검정, 브라운 계열과 광택을 띠는 파란색이 주로 나타나는 색이며,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장신구가 대비를 이루며 조화롭다. 이 장신구들은 여러겹의 금사슬에 파랑, 빨강, 노랑등의 색 보석으로 부피있게 치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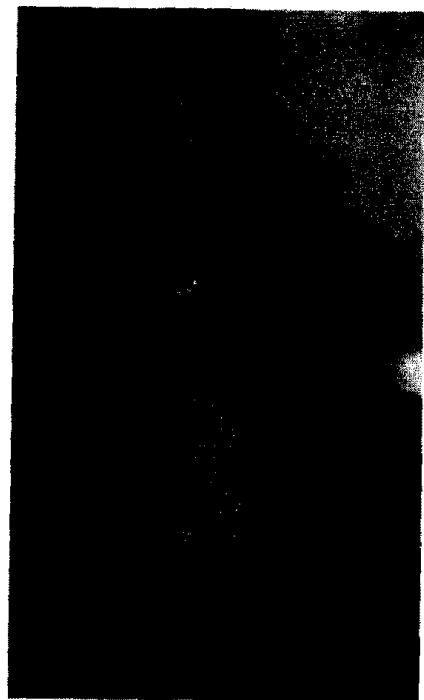
[그림16]은 모피로 만든 러시아풍 모자를 보여준다.

28) 제임스 스노우던, 유태순, 「유럽의 민족의상」(서울:경춘사, 1988)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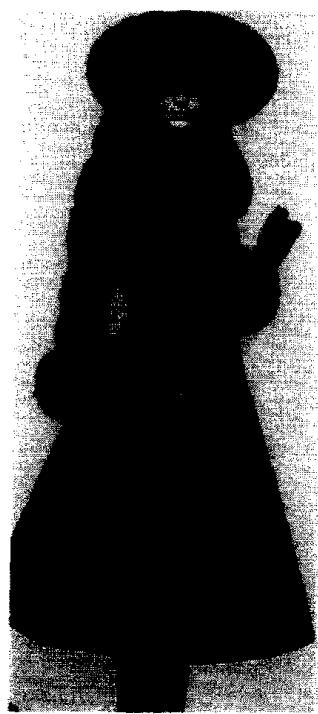
[그림16] Louis Feraud(gap, 89-90 A/W Hair and Make-up)

단순한 형태에 화려한 구슬장식의 러시아풍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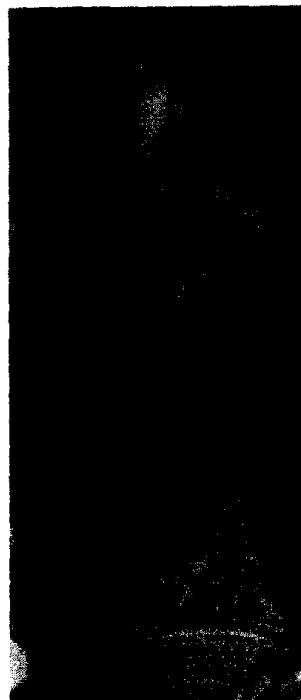


[그림18] Missoni(gap, A/W 90-91)

퀼팅(quilting) 기법이 쓰여진 모자, 외투와 바지.



[그림17] Carven(gap, 89-90 A/W Hair and Make-up) 모피 장식이 특징적인 프린세스 라인의 코트



[그림19] Venezia (gap, A/W 90-91)

러시아 특유의 동 건축물이 그려진 니트웨어

[표1] 각 이국취향의 복식디자인 요소 비교

	원시적 특성 (Primitivism)	동양적 특성 (Orientalism)	동구의 소수민족의 특성
형태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상의와 단순한 로인클로드 형태 웃감을 두른듯한 원피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peze Line, Slim Line Draped Style, Layerd Look Mandoline Style, 동양의 두루마기 스타일, 기모노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성한 long coat-프린스 style Lap coat 다양한 직조, 문양의 knit wear 장식적인 투피스
재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의 겹질, 조개 겹질, 동물뼈 등 채집한 재료 기친마, 면 등 올의 특성 강조 고대유적의 벽화-동물, 기하학적 무늬 아프리카 가면, 토속적 그림의 도안 바틱 동·식물을 모티프로 한 복합적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무늬있는 비단, 인도의 얇은 실크나 면 동양의 마와 여름 비단(紗) 금속실과 광택이 강조된 이중적 웃감(다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벳, 이중직실크, 아스타라잔 니트, 양가죽, 타페스트리천 모피 자카드문양, 러시아 예전물의 도안 용무늬, 꽃무늬, 페르시아의 타페스트리 문양
문 양			
세부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피스런 목걸이, 펜던트, 귀걸이, 돌, 금속 등 바디페인팅 굵은 터치의 Bead 장식 밀짚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수, 구슬(Bead, 거울조각) 금박이나 수를 놓은 옷 가장자리의 띠장식 특징적인 Head 평면재단과 핸드메이드 기법 터번, Head Sc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크(toque), 코사크 모자 같은 술(tassel) 챙없는 모자, 부츠 카라풀한 보석과 금빛 악세사리 모피의 가장자리장식 Quilting, pleats 기법
색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흙, 땅의 색 (갈색, 황갈색, 금색) 풍부한 자연색 (초록, 바다색, 주황, 빨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위주, 색동표현 다양한 명도, 채도를 갖는 화랑 보라, 검정, 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택이 강한 금색강조 검정 사파이어의 화랑

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양패션에 등장한 민족풍(Ethnicism)과 원시적 특성(Primitivism)을 지닌 하나의 경향을 '이국취향(Exoticism)'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경향의 복식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국취향'이란 어느 특정 나라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물과 정서로서,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러한 이국취향의 개념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양복식에 나타난 민족풍과 원시적 특성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뉴스의 초점으로 부각된 나라들의 문화 및 뉴웨이브(New wave) 패션의 흐름중의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배경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원시적 특성' '동양적 요소'와 '동구권 민족복식의 요소'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시적 특성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현대 미술사조에서 추구했던 바와 일맥 상통한다. 기교에 익숙했던 패션에 창작성이 자유 분방하게 표출되어 소박하고 간결한 복식미를 보여준다. 동시에 순수한 감정표출과 창의력, 재치있으면서 강렬한 표현성은 일상을 벗어난 초월함과 내포된 개념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원시의 사상과 신비성, 그리고 상상, 추상, 생명이 표현된 의상들이었

다. [표1]에서와 같이 단순한 의복 구성과 다양한 재질이나 문양의 표현성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풍부하게 표현한 색상과 악세사리가 원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해 주었다.

둘째, 역사적으로 오랜동안 서구 복식에 영향을 주었던 '동양적 요소'는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복식 미가 두드러 진다. 아랍국가에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기 까지 화려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각 민족 의상이 모티프가 되었다.[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트레페즈 라인, 슬림 라인, 그리고 드레이프나 레이어링 스타일위에 표현되었다. 이는 기능적인 'Easy Look'인 동시에 인간의 장식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있다.

셋째, 동구권의 민족적 요소는 80년대 후반에 부각되기 시작한 테마이다. 정치상의 변화나 유럽과 동양의 이중적 특징을 지니는 문화적 입장으로 보아 패션에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관심과 함께 주목 받은 아이템(Item)은 가을과 겨울 콜렉션에서 나타났다. [표1]에서와 같이 단순한 형태에 모피나 보석 장식등이 더해져 우아하고 품위있는 복식미를 보여준다. 이 동구권의 민족적 요소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원시적 특성이나 동양적 요소에서 표현된 형태보다 더욱 입체적인 구성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1년까지 서양에서 보여준 이국취향은 상실했던 낭만적 정서와 민족적, 토속적 특징이 발휘된 유행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논문 작성과정에서 자격된 점으로는 지금까지 복식 분야의 학문적 연구가 서양복식에 치중되어 오고 있으며, 비서양 지역의 복식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자료의 부재(不在) 및 용어 사용의 혼란이 지적 되었다. 따라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도외시 되었던 각 민족의상과 그 역사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From the mid-1980s to '91s, remarkable Ethnicism and Primitivism in the Europe fashion trend could be represented as an exotic taste longing for scenery and emotion of non-europe area in

the West.

These phenomenon coule be found out in connection with Acculturation, which means when two different cultures or more were contacted they were identified or merged in process of diffusion and change of them. This point of view was the culture anthropologic one that make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minate exotic taste represented in costume in the cluture-anthropologic aspect, to compare with beauty of costume that each culture of costume had, and to study as aspect of exotic taste in costume and the meaning of the times due to those differences.

an aspect of the exotic taste and character in the western costume that was inspected by dividing into 'Primitivism', 'Oriental element' and 'the element of a national costume in the East European bloc' were as follows:

First, Primitivism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what was pursued in the trend of Mordern Art, through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fashion fettered by technique, the creation expressed in a free way and showed simple beauty of costume. At the same time, pure emotion expression, creative power and witty strong expression give the cognition of transendency breaking the routine and the cognition of complexity of an included conception. Those are garments showing not only the primitive thought and mysticism but a fancy, an abstraction, and a life. Colors and accessories which described nature and matched simple costume composition to the expression of various material or patterns transmitted the image of the primitive strongly.

Second, "Drental element" which had an effect on Western custome historically in a long time had outstanding luxurious adornmental beauty of custome. Extending from the Arab states India, China, Korea, Japen, each national costume with a gay national culture became one of motif. Various ornamental factors expressed on Trapez

Line, Sime Line and Drape, or Raied style, which did not restrict the body. Those were not only functional Easy Look, but were also satisfying human's ornamental desire.

Third, national factors in the East European bloc are theme that begins to be embossed in the late 80's. In view of a political change and cultural situation with a double character of Europe and Orient, it was estimated that national factors have great importance in fashion. Item concerned with new concern appeared at Autumn & Winter collection. It shows elegant and graceful beauty of costume by adding a fur or jewel to simple form. These national factors in the East European bloc are simple form, but shows the difference in more cubic formation than form expressed in Primitivism or Oriental factors. Exotic taste appeared from 80's to 91's, is thought to create an forgotten romantic emotion and traditional fashion

참 고 문 헌

콤브리치 E.H 최민 역 「서양미술사」 서울 : 열화당, 1986

권택영,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 자연주의에서 미니멀나즘이까지」 서울 : 민음사, 1990

김민자, "아르데코 양식과 Paul Poiret의 의상 디자인" 서울대 가정대학 「생활과학 연구소 논문」 제13권 1988

김옥진, "낭만주의 복장형태와 낭만주의 문학사상 그 상관성" (1918-1848년 프랑스어 경우) 「전남대 논문집, 가정학편」 29집, 1984, 12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재관, "현대 미술속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회화과 석사논문』 1978.11

김 청, 「패션과 예술」 한국패션 산업연구소, 금오 출판사, 1984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대 의류직물

학과 석사논문, 1986 동아일보사 월간 「엿」 1986.12, 1987.5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박민자, "20세기초 미술활동이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 「경희대 논문집」 11, 1982.2

박홍서, "포스트 모던 건축의 매너리즘적 경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8

박혜원, "Paul Poiret의 Modernism", 이화여대 의류 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백영자, 유효순 공저 「서양 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91 小學館「世界의 旅」 동경 제1, 4, 5, 6권 1971

손숙영, "피카소 작품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회화과 석사논문, 1978.11

深作光貞 저, 申英仙역, 「衣의 文化人類學」 서울 : 교문사, 1990

양숙희, "Decration의 기능과 Europe의 여성의상개혁운동" 숙명여대 「생활과학 연구소 논문집」 1983.12

에드워드 루이스-스미스 「현대미술(ART NOW)」 한국미술연감사, 1985

이광규,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이광규, "서양에서 본 동양문화", 연세대 「동서연구」 1988.6

이은영, "현대복식과 예술적 의미에 대하여" 숙명여대 「원우론총」 3, 1985.8

이인자, 「복식 사회 심리학」 서울 : 수학사, 1989

이정후, "현대 여성 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이희현, "Culture Change와 Acculturation 이론을 중심으로 본 현대복의 성립" 강릉 「관동대 논문집」 (자연과학, 예체능) 17, 1982.2

이희현, "현대 복식에로의 출발" 강릉 「관동대 논문집」 (자연과학 예체능) 1, 1985.1

정완섭, "Russia 민속의상 연구", 강릉 「관동대 논문집」 (자연, 예체능) 19, 1990.2

정장철, 정삼식 「세계지리 풍속대집」 서울 : 동양출판사, 1966

- 정정호, 강재희편 「포스트 모더니즘론」 서울; 터, 1989
-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1988
- 제임스 스노우던저, 유태순역 「유럽의 민족의상」 서울; 경춘사, 1988
- 조규학,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 조수연, “벨 에포크(Belle Epoque) 복식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석사 논문, 1990
- 중앙일보사 「세계를 간다」, 1989
- 타임 라이프 「Library of Nations; 라이프 세계의 국가」 한국일보사 제2, 3, 4, 8, 11, 19, 88
- 타임 라이프 「The Art of Sewing 1; Exotic Styling」 뉴욕: Time Life Books(제3권) 한국 일보사, 1985
- 板倉壽即저, 이현숙 옮김,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89, 학습연수사 「러시아 노염직」 동경, 1984
- 한국직물시험검사소,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에 대한 고찰” 5권 1호-6권 1호 1974.4-1978.6
-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풍저,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한양순, 정승자, 이영숙 풍저, 「여러나라의 민족무용」 서울; 동화문화사, 1974
- 허 준, 「파리모드 200년」 서울; 유림문화사, 1987
- 허 준, “패션과 문화” 「패션문화」 1호 한국패션문화연구소 1991.4
- 황춘섭, 「민족의상」 서울; 수학사, 1991
- Bailey Adriam 「A Passion for Fashion: Changing Styles in Dress from 1700 to 1950」, British Library Cataloguing Data in Publication, 1988
- Batterberry Michael, 「Fashion-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1982
- Black J, Anderson & Madge Garland, 「A History of History」 London; Orbis Publishing, 1980
- Frangois Boy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7
- Je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Penguin Books Ltd, 1988
- Lavina M, Franck, 「History of Costume」 The University of North Carelina at Freen-sboro,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 1978
- Margaret Courtney-Clarke, 「Ndebele: The Art of An Africa Tribe」 New York: rizzoli, 1986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Third Editim)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8'981
- 「Collezioni」 Italy: Zanfi Editori
- 「Fashion Preview」 New York: Rock Publishers, Inc
- 「Gap」 Tokyo: Gap Japan Co. Ltd
- 「Mode et Mode」
- 「Vogue」 Deutch & Paris